

근원 (로마서 11:33-36)

오늘 볼 말씀은 근원이다. 아주 기본인데, 여기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온다는 것이다. 놀라운 은혜가 있기 바란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이 열리는 것은 참 중요하다. 영적인 것 뿐 아니라 육적인 것도 마찬가지이다. 경제에 눈이 열리면 돈을 벌게 된다. 눈이 안 열리면 뭘 해야 할지 모르니 방향한다. 돈은 필요한데 눈이 안 열려서 길을 모르는 것이다. 그런데 눈이 열리면 생각이 달라지고 세계가 달라진다. 이유도 달라지고 의욕도 달라진다. 결국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다. 불신자가 만일 그리스도에 눈이 열린다면 마음, 생각, 가치관 인생의 결과까지 다 달라질 것이다. 신앙생활을 오래동안 한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성경의 약속을 이해하고 누리고 증거하고 보는 것에 깊이가 있다. 한단계 한단계 깊어질수록 따라오는 것은 눈이 열리는 것이다. 이 눈 열림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말씀은 예배중에도,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길을 가다가도 들어올 수 있다. 모든 것은 말씀으로 하시기 때문에 말씀 통해서 우리의 눈과 누림이 깊어진다. 그 결과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높아진다. 성경의 단어는 그 중에 하나만 이해해도 전체를 이해할수 있게 되어 있다. 말씀은 한분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즉시로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 당장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어 있다. 그리고 즉시로 그리스도 받아들일 것이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전부다 이해되고, 사명도 갖게 될 것이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알고 그 언약과 소원을 알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시간표를 따라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 언약하신 그리스도를 알면 그 안에 약속된 내용이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중에 나타난다. 그래서 눈이 열리고 위하여 말씀 하나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어쭙잡게 들어온 말씀 하나가 그 사람의 인생의 전환점 된다. 나도 어느날 선교사 훈련원이라는 단어가 공알만하게 들어왔다. 그때 나는 평신도였고, 그 당시에는 평신도 훈련원 들어간다고 하면 목사가 되는 코스였다. 그 조그만하게 들어왔는데, 모든 것을 접고 신학교 들어갔다. 한 2년 걸렸다. 일부러 기도 안하고 그냥 두고 있었다. 인생 전환점이다. 목사될 생각을 전혀 안 했었다. 나이는 45살 정도였다. 이것이 말씀 한마디에 이렇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은 나보고 약사 면허증 주고 최고로 큰 약국을 준다 해도 안한다. 목사가 훨씬 가치가 있다. 약국 하는 분들을 무시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 분들도 다 목사되면 된다. 그러면 나같은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두에 선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중직자로서 이 일에 앞장선다면 더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다. 히브리서 12:1절에는 구름같은 많은 증인이 있다고 했다. 구름같이 많은 이 사람들이 전부다 인생 전환점을 체험한 사람들이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축복이 있기 바란다. 다 필요없다. 말씀 딱 들어오면 된다.

1. 근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한 근원이다. 36절에 아주 간단하게 요약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그 어떤 존재도 입하나 뽕끗 못할 선언이다. 모든 피조물은 이 문장 앞에 무릎 꿇어야 한다. 이 본문은 사도바울의 개인고백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신지를 간단하게 요약했다. 33절에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하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대부분의 우리들은 이 말씀이 맞다 싶어도 큰 느낌은 안 올 것이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체험해 본 사람이 사실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체험했기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누가 그의 판단을 헤아릴수 있겠냐는 것이다. 누가 그의 길을 먼저 찾겠냐는 것이다. 보여줘도 모르는데, 이것은 도무지 불가능이고 대단한 것이라는 것을 체험한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수 있다. 34절에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어느정도라도 접촉해 본 사람이 할수 있는 말이다. 우리는 대개의 경우,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사도바울은 적어도 이정도 표현할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느꼈다.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냐는 것은 모사는 지도자 옆에서 조언하는 사람이다. 누가 하나님에게 조언을 하겠냐는 것이다. 35절은 조금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는데, 누가 주께 먼저 드러서 깊으심을 받겠느냐고 하였다. 누가 하나님에게 돈 빌려주고 나에게 갚으라고 할수 있겠냐는 것이다. 물질 뿐 아니라 마음도 마찬가지이다. 누가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드러서 하나님께 갚으라고 하겠냐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을 말할때에도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 모든게 다 믿어지는 사람은 내가 믿는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믿으려 해도 안 믿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체험한 사람은 이것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사도바울은 이것을 경험했기에 우리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다 받아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면 생존 자체가 안되는 존재이다. 그래서 36절에 이 모든 것을 요약한 것이다. 이는, 곧, 그 이유는, 그런 뜻이다. 그 이유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당연히 영광이 세세에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중에 누가 이런 기도 하는가? 이것이 사도 바울과 우리의 차이이다. 이 말씀은 인간 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근원이 되는 말씀이다. 모든 것이 그에게서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 지금도 그로 말미암아 되어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당연히 기도해서 그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만물이 그에게로 결론적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나에게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 래야 구원을 받는다. 이 세계가 되지 않고는 아무리 성공해도 실패한 인생이 되버린다. 아무리 땅에서 성공해도 지옥가버리면 소용없다. 한마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지혜이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다. 당연히 그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는 우리 인생을 말미암는다고 했으므로 우리의 모든 것이 그의 손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언약잡고 기도하면서 그를 따라가야 한다.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지혜이다. 자기 멋대로 살아서 잘 되는 사람이 있다. 결과는 나중에 봐야 한다. 지금은 그 사람

들이 더 나은 것 같다. 그러나 결론은 나중에 있다. 이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면 길이 아니고, 내가 길이라고 하셨다. 당연히 모든 것의 결론이 또한 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기다려라. 잘 알고 믿고 최선을 다하여 따르고 있는 우리들이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다시 한번 언약되기 바란다. 말씀은 살아 있는 생명체이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언약으로 잡는 행위가 너무나 중요하다. 이 영적 작업은 살아 있는 생명 운동이다. 이렇게 해서 인생을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 사람은 이 땅에서도 살아있는 축복을 계속 받는다. 우리의 기본이요, 근본이다. 마음에 다시 한번 생각하기 바란다. 렘넌트 7명은 평생을 두고 받은 말씀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것을 고백하는 24시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를 뽑아서 7명이다. 그들은 전부 기적의 인생을 살았다. 기적을 원한다. 우리는. 답을 성경에 써 놨다. 기적의 인생. 남미의 흐름을 바꿀수 있겠는가? 미국은 분명 영적으로 죽어간다. 흐름 바꿀수 있겠는가? 우리 조그만 교회가 할수 있겠는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서 언약을 잡았다면 되어지는 것이다. 미국에 왜 살겠는가? 하나님이 미국에 부르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남미까지 가야 한다. 그들은 전부 기적의 인생 살고 시대를 살렸다. 문화를 뒤집어 버렸다. 역사의 흐름을 바꾸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바울이다. 우리를 이 시대에 이 사명주셨다고 믿는가?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할 것이다. 이 놀라운 일이 말씀을 받고 고백하는 아무것도 아닌 것같은 언약잡은 24에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들어온 사람은 그런 인생 된다. 24시간 언약을 잡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 하시라고. 하시면 따라가겠다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것이 미국만 바꾸는게 아니라 내 인생도 이것이 바꾸는 것이다. 여기에 응답이 있다. 내 인생을 정복하는 응답이 여기에 있다. 성경과 같은 응답을 받을 것이다.

2. 응답

우리에게 응답은 중요하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응답이 중요하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응답이 없으면 정복 안된다. 정복 안되면 어떻게 되는가? 평생을 인생에 눌러서 산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문제를 정복해야 하고 사단 정복해야 하고 영적 문제를 정복해야 한다. 그리고 응답이 없으면 증인이 안된다. 이것이면 된다는 소리를 끝까지 할수 있는 사람이 증인이다. 그리고 그 때, 실질적인 증거를 보여줄수 있는 사람이 증인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연히 이 사실을 알려주신다. 그것이 증인이다. 그러면 그 답이 성경에 당연히 기록되어 있다.

응답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기도이다. 너무나 당연하고 사실이다. 그러나 기도할 때 언약을 딱잡아야 한다. 기도 많이 하는 것 귀한 일이다. 그러나 기도만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언약을 잡고 많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성취하는 것은 기도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언약이다. 그리고 사단이 원인이기 때문에 사단이 무너져야 한다. 모든 것은 영적문제이다. 사단이 무너지고 깨지는 답은 한 개 뿐이다. 그리스도, 곧 십자가의 보혈이다. 이 언약의

피 안에 사단의 머리가 깨지는 약속이 들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그 언약의 피, 놀라운 보혈, 그것을 언약으로 잡고 기다려야 한다. 이런 기도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 그래서 우리의 로망이 24시이다. 이것이 되면 된다.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의 중요한 요소가 하나님의 소원이다. 언약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리고 기도를 주셨다. 이유는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려라. 이것 말고는 하나님에게는 가치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 전도와 세계 복음화는 너무나 중요하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이것이다. 이것은 중요한 표현이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사람을 저주에서 살리기 위한 것, 그래서 언약과 소원 이 두가지가 중요한 요소이다. 누리면 기본적 응답은 다 오게 되어 있다. 누리면 생각이 커지고 말이 커지고 기도가 커지게 된다. 그리고 더 힘을 갖게 된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 안으로 한명이 더 들어왔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는 구원받는 언약은 아니다. 구원받는 언약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다. 그걸로 끝이다. 그런데 믿음후 무엇을 할건가? 하나님이 믿는 자를 통해 뭐 할것인가도 중요한 것이다. 믿고 방안에 앉아서 평생 앉아서 살다 죽는것도 구원받았으니 귀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받고 난 후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 찾으시라. 그 사람에게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 늘 듣는 말씀이지만 오늘 다시 한번 언약이 되기 바란다. 언약이 되어 들어오면 그 말씀이 다시 살아난다. 늘 듣는 말 중에 들어왔는데, 그것이 인생을 뒤집는 것이다. 이 살아남이 계속되는 것을 보고 24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응답과 누림이 어느정도이겠는가? 그 안에 있는 권세와 정복이 어느정도이겠냐는 것이다. 처음에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처음에 나오고 난 후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지금도 그에게서 계속 나오고 있다. 그 때 만들어진 이후에 이 창조가 중단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그에게서 나온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창조적인 시대적인 응답과 증거같은 것들이다. 당연히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를 마치신 후에, 그냥 다른 곳으로 가지지 않았다. 여전히 그 창조물과 함께 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 이것을 본문이 - 그로 말미암고 - 라고 표현하셨다. 지금도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시간표를 조정하시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성령님 인도를 받아야 하고 그 가장 근원적인 답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언약으로 잡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피조물이 그에게로 돌아간다. 이것이 모든 피조물의 결론이다.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이다. 이 날에는 믿음이 있는 자 외는 전부 저주다. 마22:13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온 사람에게 한 말이다.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 고 하셨다. 청한 사람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사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왔지만, 항상 왕은 잊지 않고 예복의 여부를 따지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도 이 예복 곧 믿음이 기준이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근원을 확인하고 저주에서 나오고 인생을 정복하는 증인의 삶이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작품 인생이 되게 하실 것이다.